

서평

평화의 렌즈를 끼고 세기사적 전환을 모색하다

『세계평화개념사: 인류의 평화, 그 거대담론의 역사』

(이찬수 외 공저, 인간사랑, 2020)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구도완 외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정진헌 (베를린 자유대학교)

평화의 길로 들어서기

평화는 명사이자 형용사이고, 이상이자 현실이며, 추상적 개념이자 구체적 행위이다. 그것은 목표이면서 과정이고, 내용이면서 방법이다. 수호해야 할 객관적 대상인 것 같지만, 만들어가야 할, 만들어가고 있는 유무형의 물리적 환경이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일상에서 구현되고 체험되는 평화를 우리는 갈망한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준비했다. ... 우리는 한 번도 다

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고, 어쩌면 다르게 사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¹⁾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고백처럼, 인류사에서 전쟁은 우리의 일상을 만들었다. 그렇다. 인류가 전쟁을 만들었고, 전쟁은 우리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라는 종에게 있어 폭력이나 전쟁이 유전자에 각인된 것은 아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류학적 연구에서 폭력과 전쟁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인간사에 항상 존재하는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지 않는 사례들은 많다.²⁾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갈등 상황을 무력을 통해 해결하고 다른 사회 구성요소들과 질서들을 유지하는 길을 걸어온 사회가 있다면, 그와 달리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화로 승화시키는 법을 오랫동안 내재화한 사회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자가 주류를 이루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이다. 그것을 우리는 토마스 쿤의 용어를 빌려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라 부를 때인 것이다.³⁾ 최근 한국에서 평화학과 평화담론이 꾸준히 연구되고 그 성과들이 나오는 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기 때문이라 여길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올해 출판되어 평화연구의 지평을 넓힌 두 권의 역작을 논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총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세계평화개념사』와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이 그것들이다. 전자가 “개념”으로서의 평화를 인류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면, 후자는 평화의 실체, 그 중층적 콘텐츠를 분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평화에 대한

1)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서울: 문학동네, 2015), 15쪽.

2) Rubinstein, Robert and Rik Pinxten, “Anthropology and Peace Studies,” in Nas, Peter J.M. & Zhang Jijiao ed., *Anthropology Now* (Beij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ublishing House, 2009), pp. 295-310.

3)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연구와 분석은 쉽지 않아 보인다.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이 적절하게 조합되고, 다소 추상적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해체하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논점을 제시해야 하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학은 통섭적 학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화를 구현하는 차원이라 본다면, 학술적 성과와 더불어 다양한 예술 장르로의 외화, 일상의 실천, 상층 단위에서의 제도화 등 씨줄 날줄의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서평도 그런 평화 만들기 과정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쓰고자 한다. 학술적 논쟁은 냉철할 필요가 있지만, 되도록 긍정적인 부분을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는 상생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도 평화학의 일부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여 먼저 두 저서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후, 함께 고민할 질문들과 의견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즉, 평가하기 위한 서평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서평이고자 한다.

평화의 산책 1 : 『세계평화개념사』 둘러보기

우선, 『세계평화개념사』부터 살펴보자. 이 책은 “인류의 평화 그 거대 담론의 역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개념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분석철학에 의하면 논리적 실체, 논리의 지리학이다. 파편적인 생각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정신적-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이성에 의해 언어로 표현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개념은 보편적일 수 있지만, 종종 특정 시기 특정 집단에 의해 통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권력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독특한 시대와 문화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시대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세계평화개념사』는 바로 그러한 시공간의 매트릭스 안에서 변형을 거듭해 온 평

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있다. 제1부는 유럽-인도권, 제2부는 아시아, 그리고 마지막 제3부는 이슬람, 남미, 남아프리카 등 총 10개 나라가 등장한다. 각 국가와 문화권역별로 통사적 접근을 시도하여 시대별 변화와 한계, 그리고 함의까지 성찰적이며 총체적으로 분석한 집필진들의 노고는 한국 평화학의 성과임에 분명하다.

제1부에서 논의되는 이탈리아, 영국, 인도에서의 평화의 개념은 제국과 식민지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 1장 이탈리아와 2장 영국은 시대를 달리한 제국들이다. 고대로부터 중세시대까지 로마제국이 제패했다면, 대영제국은 항해시대 이후 식민지 시대까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였다. 이런 역사의 뒀안길 끝에, 이탈리아에서는 볼로냐 시험동조합의 예에서 보이듯 “삶의 기술로의 평화”가 실천중이라면, 영국은 “평화로운 전쟁”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인류 보편적 평화까지 포용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3장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리고 그 식민지 역사는 시대의 성인 간디를 키워 비폭력주의라는 대안적 평화론을 펼치게 했다. 1부에서부터 적극적 평화에 대한 열망과 내용은 피억압 국가나 주체들에서 더 강하게 발현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열망은 비주류라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제2부 동아시아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을 아우른다. 사회주의 혁명, 메이지 유신과 식민지 확장, 피식민지에 이은 분단과 내전 등 근대 국가 형성 과정이 폭력적으로 일어난 지역이다. 그만큼 각 나라들은 전 근대적 과거와의 단절(rupture)이 격하게 진행된 셈이다. 저자들은 중국과 한국은 고대로부터의 평화 개념을 추적하고, 일본과 북한은 근대국가 형성 전후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일통” 즉 대동사회 구현을 추구한 전통적 중국의 세계관, 반군주제 반전 평화론이 면면히 이어지지만 “공기”로 대변되는 일본 사회의 무력감, 그리고 분단의 상처 속에서

평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현실화해왔던 한국과 “자위로서의 평화”를 추구하는 북한이 소개된다. 한때 한자문명권 안에서 수천 년을 공존했지만, 유럽과 달리 일제 식민지 과거사 청산의 부재와 냉전의 잔존으로 적극적 평화 실현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절실해 보인다.

마지막 3부는 이슬람, 과테말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다룸으로써, 유럽과 아시아 이외의 지역들을 대표적 국가들로 논하고 있다. 1990년대 냉전 해체 후 국제 정치 갈등의 무대를 대체한 종교문제와 테러리즘 때문에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해 저자는 주변국과 서구세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핵심 교리와 정신의 오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남미 과테말라의 내전 개혁 과정도 과거 식민지 역사와 최근까지 미국의 정치 개입 등의 관계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켜주고 있다. 마지막 남아프리카 역시 백인 우월적 인종차별정책이었던 아파르트헤이트 해체 과정은 곧 외부로부터 이식된 권력과 폭력을 어떻게 전통적 공동체 의식인 ‘우분투’를 통해 극복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상의 간략한 요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정복과 저항-화해,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적 기류가 흐르는 세계사를 만난 셈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편집자들이 서문에서 밝혔듯, “대부분 현실에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했거나 … 편승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국으로 대표되는 정복, 혹은 당시 그들의 언어로 보면 Pax-(peace) 접두사의 역사였다. 이에 대한 약자로서의 저항과 반작용 과정에서 오히려 범우주적으로까지 보이는 공존과 상생으로서의 대안적 평화주의가 등장한다. 물론 제국의 역사에서도 평화가 “인류에게 두루 적용될 보편적 가치라는 사실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곳은 없었다”(17쪽). 평화의 개념은 어디에서나 양면적이었거나 혹은 다양하게 공존했다는 의미이다.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저서는, 평화가 오랜 역사성을 가졌고, 힘을

바탕으로 한 질서유지가 주류였으나, 비주류로서의 넓은 범주의 평화는 나름 순기능적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 때문에 우리는 기존 평화학,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한 평화학과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먼저, 기존 연구물들과의 관계에서 이 저서의 특징을 들어보자. 평화학이 통섭적이며 초학제간 연구라는 점은 누누이 강조해 왔다.⁵⁾ 그러나 평화라는 주제어로 각 나라나 지역별 개념사를 추적하고, 그것들을 비교론적으로 이해하게끔 망라한 연구는 드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저서는 평화라는 “렌즈”를 통해 세계사를 들여다보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은 평화를 이상이나 목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눈앞의 돋보기처럼 두고 이 개념을 통해 다른 사안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인권, 생태, 국제 관계와 자본과 노동의 관계 등을 보자는 제안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해 아쉬운, 독일,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특히 미국 등을 포함해 제2편이 나온다면, 우리는 보다 폭넓은 시야로 과거로부터 미래를 열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 저서의 모호하거나 부족한 부분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보기에 따라서 이 저서의 성과일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성에 대한 것이다. 각 나라별 평화의 개념을 추적함에 있어 고대까지 내려가서 논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문화나 역사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논의가 덧붙여줘야

4)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 다원주의와 평화 인문학』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6).

5) 이에 대한 기존 논의는, Galtung, Johan, 2010. “Peace Studies and Conflict Resolution: The Need for Transdisciplinarity” *Transcultural Psychiatry*, 47(1), pp. 20-32, 그리고 서보혁·정육식,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6) 참조.

하리라 본다. 전근대(pre-modern)-근대(modern)-후기근대(post-modern)의 격변이 인류 역사상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전근대와 근대와의 단절도 그렇지만, 소위 68세대 운동으로 촉발된 인권, 자유, 생태, 평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매우 유의미하다. 더욱이 고대나 중세 가치관의 재발견 역시 근대 혹은 포스트근대의 산물인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그 동안의 평화학은 주로 계몽주의 태동 이후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연구 범위가 고대 시대까지 내려갈 경우,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로 환원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⁶⁾ 즉, 국가 단위 주요 인물 중심의 개념사를 다룰 경우, 근대 민족-국가 틀을 전제로 한다는 지적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당대 위인이나 사람들의 소속감, 정체성과 관련된다. 현재처럼 국경을 기준으로 제도화된 소속감, 충성 등은 근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평화학자들 중에는 폭력과 평화의 문제를 인간의 본성과 연결시키고자 고고학적 발견까지 거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갈등과 평화 모두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 평화와 갈등 연구 인류학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과거까지 추적하는 통사적 접근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 하지만, 전근대 시대의 사상이나 담론을 근대 국가적 틀거리로 보고 있다는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6) 방법론적 민족주의에 대한 여러 논의 중에서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다룬 Wimmer, Andreas, and Nina Glick Schiller, "Methodological Nationalism, the Social Sciences, and the Study of Migration: An Essay in Historical Epistemolog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 no. 3 (2003), pp. 576-610.

평화의 산책 2: 『평화의 여러가지 얼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개념사』는 독자들에게 질문의 꼬리를 물게 한다. 먼저, 힘에 의한 평화가 인류사에 주류였던 이유가 궁금해진다. 『세계평화개념사』 저자들은 힘에 의한 평화가 주를 이루었는가에 대해,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암시로 우리의 시각 전환을 유도한다. 그것은 마치 알렉시예비치의 표현처럼 그동안 익숙해 있던 전쟁이라는 텍스트는 남성 중심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자의 전쟁”은 침묵당했다는 것이다. “‘여자’의 전쟁에는... 영웅도, 허무맹랑한 무용담도 없으며... 사람만이 아니라 땅도 새도 나무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여자의 전쟁은 텍스트와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다.⁸⁾

평화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소통과 합의, 용서와 화해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하며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세계적 차원까지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평화도 늘 우리 곁에 있었으나, 침묵을 강요당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실체를 드러내어 인식하는 과제가 남는다.

이러한 과제에 도움을 주는 저서가 바로 『평화의 여러가지 얼굴 (Faces of Peace)』이다. 책 제목에서부터 평화가 하나의 획일화된 유형이 아니라, 여러 얼굴을 가졌다는 점을 주지시켜주고 있다. 이는 평화학 시리즈의 문을 연 『평화와 평화들』(이찬수, 2016)에서 주장했던 “인간의 얼굴을 한” 평화인문학의 특성을 연상케 해준다. 저자들은 이러한 평화의 얼굴을 열두 가지 페르소나(persona)로 구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구

7) 본 서평 일부는 필자가 프레시안에 게재한 내용을 활용하였음.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바로 길이니까」 『프레시안』 (온라인), 2020년 10월 13일,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101216031768679>>.

8)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18쪽.

축을 위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즉, 제1부 <평화의 토대>를 위해 생태, 공정성, 공공성, 그리고 신뢰를 호명하고, 제2부 <평화의 구축>에 필요한 공존, 대화, 합의, 화해, 그리고 안보를 모색한다. 마지막 제3부는 <평화의 공고화>를 위해 법치,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을 논의한다.

이 열두 얼굴이자 가치들은 그렇다고 평화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이들은 서로 얹혀서 때로는 이상적 가치로, 때로는 인간적 심성과 실천적 행위로, 때로는 미래적 목적으로 작동”(6쪽)하는 평화의 다른 이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의 길을 닦기 위한 세심한 설계도이자 우리 안에 내재한 평화의 실체를 인식시키고자 하는 성찰적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편집자를 포함해, 환경,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 총 열세명의 학자들로써, 통섭적 평화인문학 교과서 같은 저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평화 연구에 관심있는 일반 독자들과 학생들에게 교양 수준에서부터 심화 학습까지 넓이와 깊이를 채워줄 만한 책으로 권장할 만하다. 각 주제별로 개념 설명에서부터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이론적 논쟁과 역사적 발전 과정, 그리고 다른 개념과 주제들과의 연관성은 물론 모범적 혹은 부정적 사례들까지 비교적으로 분석하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전망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열두 가지 주제 중에서 제1부 평화의 토대 첫 장으로 “생태”를 등장시킨 것은 의미가 크다. 평화의 영역을 인간과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 그리고 미래세대까지 넓힘으로써 적극적 평화의 범주를 확대시킨다. 생태평화는 근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인류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안한다. 이렇듯 생태를 비롯해, 공정성, 공공성, 신뢰라는 제1부에 서술한 네 가치(얼굴)들은 관계적 차원에서 보면 선순환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 생태평화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

으로 보지 않고 순환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생명의 관점을 전제로 한다. 지구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2부 평화의 구축은 공존, 대화, 합의, 화해, 안보의 개념들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각각의 개념들이 큰 대사를 거치며 어떤 논쟁과 실천의 과정 속에서 구체화되었는지 살핀다. 한국사회의 지정학적 상황과 유난히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들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의 공존과 대화,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간 다양한 합의 과정이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과 실천 과정에서 “국가” 중심의 관점을 지양하고, 보편적 “인간” 관점으로 봐야 함을 안보의 장에서 상기시켜주고 있다. 보건, 식량, 기후와 환경 등이 접두사로 붙는 인간안보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서는 평화구축을 지향한다.

마지막 제3부는 법치,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을 통해 평화의 공고화를 추구한다. 즉,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 영역을 포함하여, 구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국가에서 보다 넓은 지역 단위로 확장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1-2부에서 다루어진 가치들이 균등하게 적용되는 평화의 대로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등장하고, 전지구화와 냉전 해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국가나 민족 단위 구별 짓기는 멈춰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미 다인종 다문화 현상이 심화된 유럽에서도 대량 난민 유입을 계기로 배타적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그러나 평화의 길은 법과 제도로 보편적 인간을 포용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통합의 길임이 분명함을 제3부에서는 명징하게 들려주고 있다.

이상의 요약을 통해 우리는 평화의 12가지 요소들이 서로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타당하게 논의되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접하는 현실과 견주어 구성면에서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개인, 가족, 공동체, 국가, 인류, 자연 등으로 범주를 나눌 경우, 평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관되게 추구하고 구현되는 존재일 필요가 있다.

갈등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자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인종, 민족, 젠더, 나이, 자본, 이데올로기 등 실질적인 사회 현상들과 나와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평화는 개인 단위까지 내려와서 경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한 인종 차별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진행된 미투운동 같은 젠더 이슈, 충북 게이라는 희대의 신종어를 만들어낸 보수 기독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타자화, 경제성장의 둔화 또는 불평등의 극대화로 인한 젊은 세대의 기회 불평등 문제 등은 우리가 전 지구화 시대에 일상에서 겪는 갈등 양상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감으로서의 얼굴 표정이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에는 덜 나타난 느낌이다.

때문에 두 명저에서 각각 연상되고, 제기되는 문제의식들을 토대로 향후 평화학 연구를 위한 몇 가지 간략한 제언을 보태고자 한다.

평화의 길로 함께 가기

먼저 상보적 성격의 두 저서를 활용하는 상상이다. 개별 저서로서 각자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에서 열두 가지 가치들로 평화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다룬 만큼, 그 내용들이 세계평화개념사에 등장하는 각 나라와 문화권역별로는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되고 실현되었는지 분석 평가하는 계기가 있으면 싶다. 이는 시대별로나 지역별로 다양하게 등장했던 평화론들, 그리고 실제 구현된 사례들에서, 평화

의 여러 가치 중 어떤 내용들이 보다 더 강조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두 저서로부터 영감을 얻은 평화학 저변 확대를 위한 제안이다. 바로 미시적 개인간(micro), 국가 단위(meso), 국가(민족)간(mega), 그리고 문명권역별(meta)로 범주화할 수 있는 연구 접근법에 질적 연구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문헌이나 주요 인물들의 주장 및 이론, 그리고 국가 정책 등에 대한 논의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체험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일관된 문화로서 구현되어야 한다.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통해 자칫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으로 떨어진 개념으로서의 평화를 현실의 실체로 호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지조사와 심층면접 그리고 성찰적 중층기술이라는 민족지 글쓰기를 통해, 문화적·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지구적 맥락에서 갈등의 내용과 그 해소 방법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곧 서론 부분에서도 밝혔듯,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의 다양한 평화 중에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다른 유형의 갈등 해소 문화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후기 식민주의 연구에서 “서발턴(subaltern)”을 역사의 주체로 호명했듯,⁹⁾ 그리고 알렉시예비치가 여자의 전쟁을 재현했듯, 평화의 또 다른 목소리들, 또 다른 얼굴들을 주체로 세우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의 길을 가는 학자들의 온전한 몫이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기원전 8-3세기를 축의 시대(Achsenzeit, Axial Age)라 명명했다.¹⁰⁾ 인류사에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

9) Spivak, Gayatri Chakravorty. “Can the Subaltern Speak?” in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pp. 271-313.

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인류는 지엽적 관점이나 영역을 “초월”하는 지식과 종교, 문화를 탄생시켰다. 이는 보편적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이었다. 지리적으로는 마을이나 씨족 단위를 넘어서고, 시간적으로는 내세와 미래까지 포함한 영역에 존재하는 인간을 개념화했다. 그 시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던 이행기였다. 그 이후 인류는 수천 년의 역사를 당시에 등장하여 헤게모니를 잡은 패러다임 속에서 약간의 변형을 경험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과거 수천 년이던 시간은 이제 단 몇십 년 또는 몇 년으로 압축된 빠름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권력자 중심의 서열화된 질서를 평화로 익숙하게 여겨왔으며, 현재도 권력과 부는 어딘가로 쏠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누구의 목소리로 누구에 의한 평화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각각 400여 쪽에 달하는 『세계평화개념사』와 『평화의 여러가지 얼굴』은 평화인문학이 거둔 역작임에 틀림없다. 통섭적 학문이자 사람의 얼굴을 한 평화인문학의 토대를 닦은 저서들로 관심있는 학생과 지성인들이 차분히 일독하고, 손이 언제나 닿을 가까운 곳에 두길 권장한다. 그리고 이 저서들이 쌓게 해준 지적 감수성으로 현장의 평화를 찾아 신발끈을 묶고 나서야 할 때이다. 그만큼 이 책들은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라는 인도의 성인 간디의 일갈처럼 독자들을 이미 평화의 길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10) 이 개념과 함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는, Bellah, Robert N. & Hans Joas, eds. *The Axial Age and Its Consequences* (Cambridge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참조.

【참고문헌】

- 서보혁 · 정옥식,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6.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저, 박은정 역,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서울: 문학동네, 2015.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 다원주의와 평화 인문학』,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6.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Nas, Peter J.M. & Zhang Jijiao. *Anthropology Now*. Beij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ublishing House, 2009, pp. 295-310.

Galtung, Johan. "Peace Studies and Conflict Resolution: The Need for Transdisciplinarity" *Transcultural Psychiatry* 47(1), 2010, pp. 20-32.

Spivak, Gayatri Chakravorty. "Can the Subaltern Speak?" *In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pp. 271-313.

정진헌(Jung, Jin-Heon)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문화인류학 박사 후 독일 막스플랑크 종교와 민족다양성 연구원 전 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현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괴팅겐 대학교 인류학과 초빙학자, 괴테대학교 외래교수로 강의와 연구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Migration and Religion in East Asia: North Korean Migrants' Evangelical Encounters』(2015, 단독), 『Building Noah's Ark for Migrants, Refugees, and Religious Communities』(2015, 편저), Religions저널 특별 이슈 "Religion and Refugee: Interdisciplinary Discussions on Transformative Humane-Divine Interactions"(2020) 등이 있다.